문화人

“국악에서 오래된 미래 찾아요”

국악인 박애리 씨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박애리 씨는 다양한 무대로 국악을 알려나가고 있다.

창극 배비장전 애랑역으로
5월 3일~10일 공연
더불어 사는 나눔 실천
후배양성 공간 마련 발원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는 눈물 고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여자의 아리랑은 슬프고도 구성졌고 묵직하고도 맑아 큰 울림으로 가슴을 파고든다. 그 노랫가락에 맞춰 천천히 몸짓을 하는 남자의 춤. 노래가 절정에 닿으면 몸짓은 격렬해지고 무대는 뜨거워진다. 한의 정점 아리랑이 힙합과 만나 펼치는 무대는 가슴 저 밑바닥을 흔들며 새로운 감동의 물결을 만들어낸다.

남편 팝핀현준과 함께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는 국악인 박애리 씨(37). 전통 속에 오래된 미래 그 새로운 길을 찾아 걸어가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많은 예술인들이 전통 속에서 현대를 찾고 있어요. 전통 국악의 소리를 어떻게 대중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오래된 미래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했죠. 현준 씨와 저는 각자의 분야를 서로 존중해주면서 조화를 추구하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죠. 이런 노력들을 대중들이 공감해주시는 거 같아요.”

국악인 박애리 씨는 요즘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KBS 불후의 명곡에서 남편 팝핀현준과 함께 신선한 무대를 선보이면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박 씨. 그녀는 5월 3일~10일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되는 창극 배비장전의 애랑역으로 대중들을 찾아가는 것은 물론, 5월 25일 팝핀현준과 펼치는 웨딩콘서트 ‘그와 그녀의 이야기’ 공연도 앞두고 있다.

전남 목포가 고향인 박 씨는 안애란, 성우향, 안숙선, 김경숙 씨 등을 사사하고 17살이던 1994년 전주 대사습놀이 학생부 판소리 부문 장원을 차지했으며, 1996년 동아 국악콩쿠르 일반부 판소리 부문 금상을 받을 만큼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대학교 3학년 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고난을 겪으며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박 씨는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더니…’ 라는 불교식 철학으로 이야기를 꺼낸다.

게 된 그녀는 ‘바리공주’ 주인공 역을 따내는 행운도 얻게 된다. “그저 음률에 맞춰 꼭두각시처럼 따라서 노래를 부른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결국 소리꾼은 느끼고 경험한 바가 목소리에 또 음악에 묻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공연에 임했을 때 그 노래의 진정한 의도를 전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소리꾼의 시련은 때론 또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불자인 그녀는 교계와의 인연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연등회의 노래 9집에 참여 ‘초파일 아리랑’ ‘하늘 꽃 내리고’ 등의 노래를 불렀고 연등축제 회향 한마당에서 공연을 펼친다. 또한 곧 있을 4월 16일 ‘박범훈의 뭇소리 찬불가’ 공연에서도 ‘무상게’ ‘연꽃향기 누리 가득히’ 등을 부른다. 특히 이승의 짐을 두고 훌훌 가라는 내용을 담은 무상게는 박 씨와 인연이 깊은 곡이라고.

“1999년 국립창극단에 입단을 해 처음 불렀던 국악가요가 무상게죠. 이후 백양사 통도사 직지사 등의 큰스님들이 입적하실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를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 무덤가에서도 무상게를 불러드렸어요. 그만큼 무상게는 저에게 의미가 큰 곡입니다.” 박 씨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 합창단들과 함께 공연을 하는 이 무대를 통해 찬불가가 좀더 대중화되기를 기원한다고.

팝핀현준과 함께 5월 15일 한센인들을 위한 소록도 공연도 계획 중이라는 박애리 씨. 그만큼 세상과 나누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둘은 앞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대중들에게 받은 사랑을 회향하겠다고 다짐한다.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들이 마음껏 창작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인 드림팩토리를 만드는 것이 저희 부부의 꿈입니다. 남편 현준 씨는 항상 말해요. 혼자 잘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후배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이죠.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해요. 앞으로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박 씨는 ‘배비장전’ ‘그와 그녀의 이야기’ 등의 공연을 앞두고 있다.



국악과 힙합의 만남으로 화제의 무대를 펼치고 있는 박애리-팝핀현준.

법 설하는 풍경 소리 동풍과 얘기하고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⑯ 금산사 ㊥





법을 설하는 풍경소리가 들리는 듯한 금산사 방등계단.

신령한 풍경 속에서 찾는 ‘묘한 경지’

금산사를 읊은 고려 선비의 시로는 이곡(利穀 1298~1351)의 작품이 전한다. 이곡은 고려 말의 문신으로 원나라에서 벼슬을 오래 했다. 관료로서의 인격도 곧아 한 시대의 존경을 받았고 문학적 재능도 뛰어났다. 그가 지은 〈죽부인전〉은 대나무를 의인화 한 것으로 가전체 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목은 이색의 아버지다. 그의 문집 〈가정집〉 제20권에 ‘금산사(金山寺)의 벽 위에 있는 시에 차운하다’ 라는 시가 실려 있다.

춘도청구일욕중(春到靑丘日欲中)
승유요급미농공(勝遊要及未農功)
위심해상봉래경(爲尋海上蓬萊境)
인방인간도사궁(因訪人間覩史宮)
위구첨아마북두(危構 ㅁ牙磨北斗)
법음탁설어동풍(法音鐸舌語東風)
갱사장구궁유절(更思杖 ㅁ窮幽絕)
만학연하로역궁(滿壑煙霞路易窮)

봄이 청구에 이르러 밤낮이 같아지려는 때
멋진 유람은
농한기를 가려서 해야 하고말고.
바다 위 봉래의 경지를 찾는 기회에
세상 속 도사의 궁전도 들르게 됐다오.
높이 치솟은 처마 지붕은
북두와 맷돌질하고
법을 설하는 풍경 소리는
동풍과 얘기 나누네.
절경을 끝까지 더듬고 싶은 생각도
든다마는
연하가 골에 가득해서 길이 자꾸만 막히네.

이곡이 금산사를 찾은 때는 하지를 앞둔 여름철이었던가 보다. 그가 절을 찾은 목적은 ‘바다 위 봉래’ 를 보기 위함이다. ‘봉래’ 는 동해 바다에 있다고 전하는 삼신산의 하나다. 〈사기〉 〈열자〉등에 삼신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발해의 동쪽 수억만 리 떨어진 곳에 신령한 산이 있는데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 영주산(瀛洲山)이다. 그 산에는 신선들이 살고 있으며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나무 열매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진시황도 이 산의 불로초를 구하고자 했다.

이곡은 신선들이 사는 산의 그윽한 정취와 신령한 기운을 체험하고자 하는 마음에 유람을 나섰고 그런 기회에 금산사를 들리게 된 모양이다. ‘도사의 궁전[覩史宮]’ 은 금산사 미륵전을 말하는 것이다. 도사는 범어 ‘도사다(覩史多)’ 의 준말인데 도솔천이라는 의미이며 이 시에서는 금산사 미륵전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치솟은 처마 지붕’ 과 ‘법을 설하는 풍경소리’ 는 미륵전의 웅장한 자태를 묘사하는 대어(對語)다. 여기 경련(頸聯) 부분에서 미륵전과 우주의 교감이 아주 멋들어지게 표현되고 있다. 여기까지의 시상(詩想)을 정리하면, 한가한 철에 신선이 사는 곳이라도 찾아 볼 생각으로 유람을 나 선 선비가 금산사에 도착하여 도솔천 같은 미륵전 앞에서 적지 않은 감동을 받게 되는 정황이 그려진다.

그런 선비의 한가한 마음은 더 깊은 골짜기로 발길을 놓아 보고 싶은데 ‘연하’ 가 자욱하여 길이 막히니 안타깝다. 골짜기를 가득채운 연하는 무엇일까? 아마 이곡은 불교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여 좋은 도량에서 자신을 반조하며 중생심의 무상을 느꼈을 것이다. 세간의 선비로서 오랜 도량의 풍경을 더듬으며 출세간의 묘한 경지를 생각하는 것이 그리 녹록치는 않았던 모양이다.

김시습이 본 무상의 그림자

우리는 고즈넉한 산사에서 세상살이의 시름을 잊고 평온한 마음을 누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산사의 풍경 속에 잠겨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산란하여 번뇌 망상이 떠나질 않는다. 고려의 이곡이 그런 심정이었듯이 조선의 하늘아래 누구보다 비통한 생애를 살았던 김시습(金時習 1435~1493)도 금산사에서 ‘한가롭지 않은’ 마음을 토로했다. 〈매월당시집〉 제10권에 실린 ‘금산사에 묵으며(宿金山寺)’ 라는 시를 보자.

운기미망동부관(雲氣微茫洞府寬)
영림락석향명단(ø林絡石響鳴湍)
중천성두명김찰(中天星斗明金刹)
반야풍뢰요석단(半夜風雷繞石壇)
태식고당미유자(苔蝕古幢微有字)
풍최고수만생한(風 ㅁ枯樹晩生寒)
소연일숙초제경(ø然一宿招提境)
연리소종운미란(煙裏疏鐘韻未 ㅁ)

구름 기운 아물아물 골 안은 널찍한데
엉킨 수풀이 깔린 돌에는
여울소리 들려오네.
중천의 별들은 금찰을 밝히는데
밤중에바람과 우레 석단을감싸 도는구나.
낡은 대와 당간에는
이끼 끼어 글자가 희미한데
마른나무에 바람 스치니 저녁 추위가
생기는구나.
객실에서 하룻밤 자고 가니
연기 속 먼 종소리에 여운이 한가롭지만
않구나.

매월당 김시습은 조카를 내몰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앉은 세조에 대한 울분으로 비승비속의 삶을 살다간 생육신의 한 사람이다. 한 때 승려가 되기도 했던 그는 전국의 사찰을 찾아다니며 많은 시를 남기기도 했다. 금산사를 찾아 하룻밤 묵은 김시습은 불교가 가르치는 무상(無常)의 이치를 매우 실감한다. 시의 도입부에 절 풍광을 묘사하는 마음부터 그렇다. ‘엉킨 수풀’ 과 ‘밤중의 바람과 우레’ 등이 편치 않은 심경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금찰은 금산사를 석단은 금산사 방등계단을 말하는 것인데, 김시습은 오래된 절의 낡은 모습을 이끼가 끼어 글자가 묻힌 계단과 당간지주 등으로 보여준다. 무상의 단면을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다.

울분 가득한 김시습은 절의 객실[招提]에서 하룻밤 묵었다고 평온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종소리도 멀리 들리고 마음도 한가롭지 않은 것이다. 모든 것이 무상의 그림자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 경상도 : 010-9190-3350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국 내 산 (청도 불광사 사찰 內 재배)

‘적하수오 된 장’
‘적하수오 고추장’ 판매

■ 적하수오, 적하수오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 하수오 된장 : 1 kg 5만원 • 하수오 고추장 : 1 kg 5만원
• 하수오 건조분말 판매 개시(kg당)

하수오 된장, 하수오 고추장은 청도 서룡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하수오로 만듭니다.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인터넷 검색 : 하수오 남서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5번째 저서 출간!

신간!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4권 출간!
운문 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33종 65권의 저서 출간!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